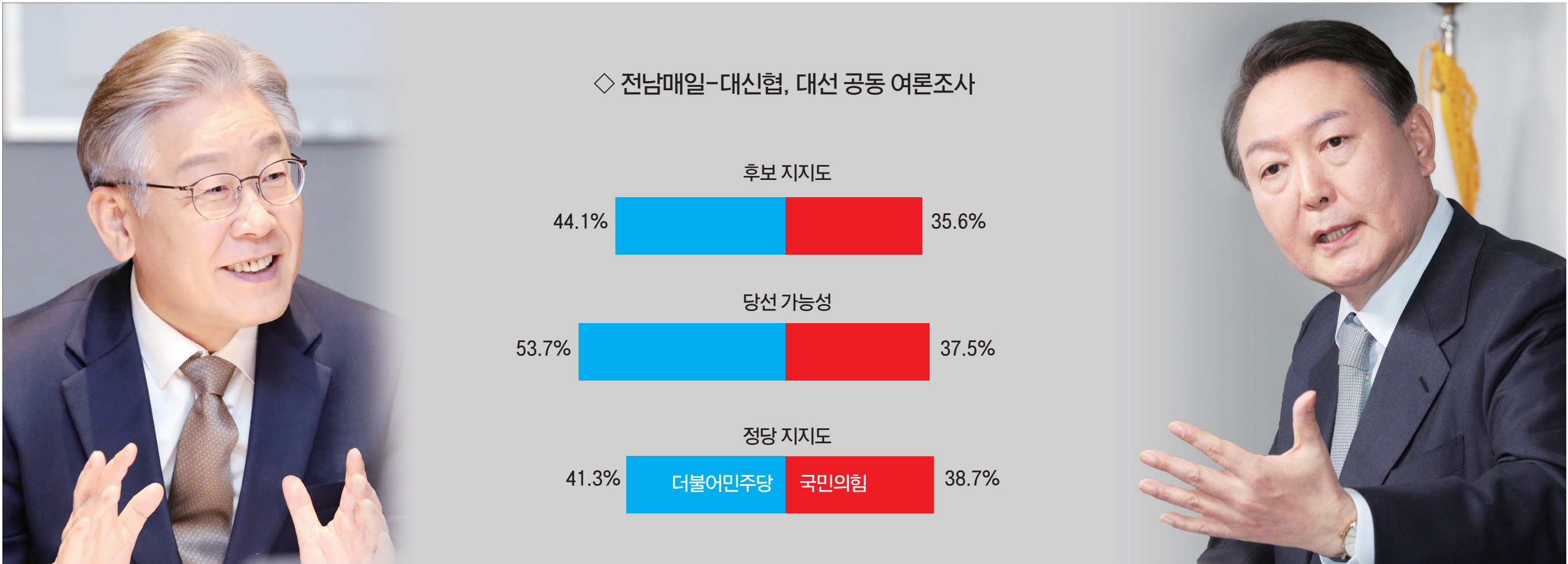


‘당선 가능성’ 이재명 53.7%·윤석열 37.5%



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◇대선후보 지지도
2일 전남매일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 44.1%, 윤석열 후보 35.6%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8.5%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.7%, 정의당 심상정 후보 3.8%,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0.5%, 기타 다른 후보 1.3%, 지지 후보 없음 5.4%, 잘 모르겠다 1.6% 순이었다.
권역별로는 광주·전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66.6%의 지지율을 얻었으며, 윤석열 후보는 18.4%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.
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인천·경기(50.4%), 대전·충청·세종(43.8%)에서 상대적으로 앞섰고, 윤석열 후보는 대구·경북(51.3%), 강원·제주(43.8%), 부산·울산·경남(39.7%)에서 지지율이 높았다.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(39.0%), 윤석열 후보(40.1%)로 초박빙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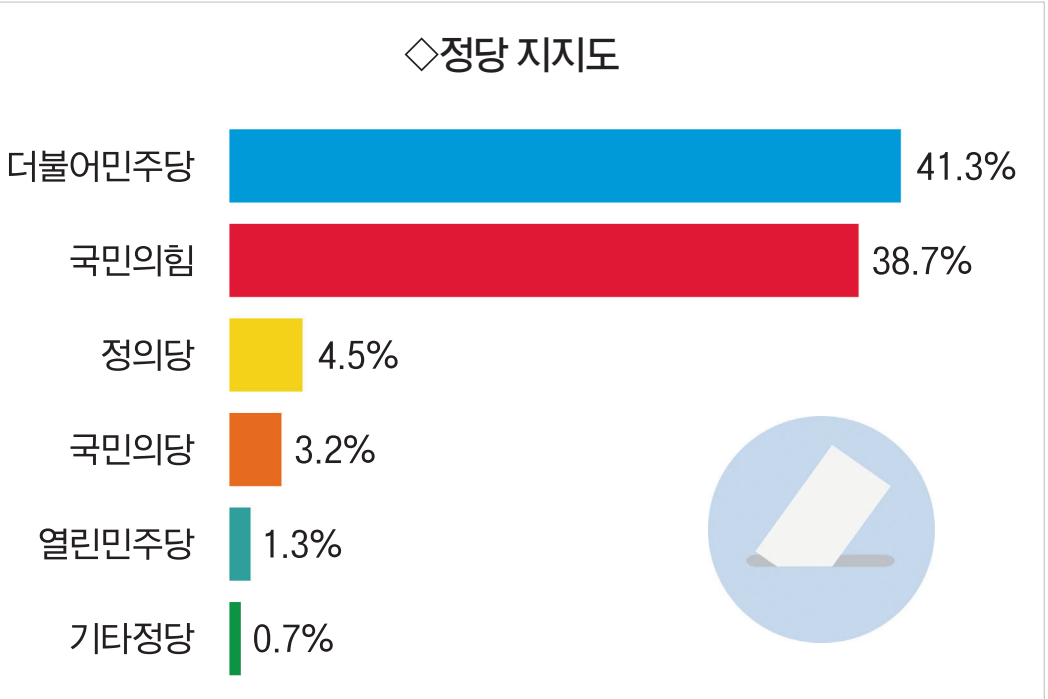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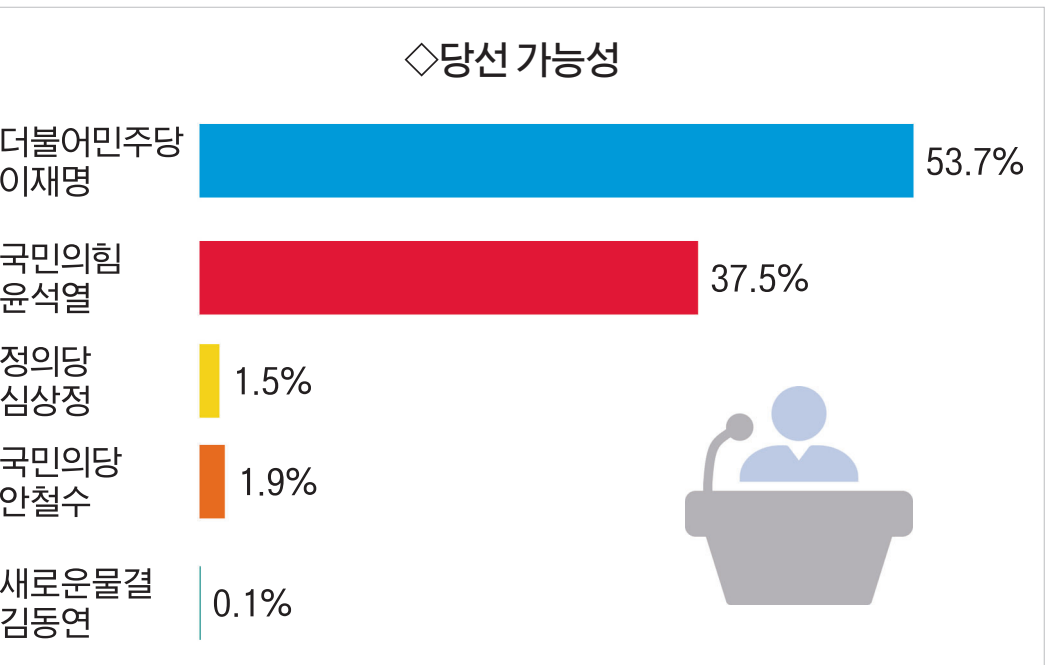
◇당선 가능성
당선 가능성은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(53.7%)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(37.5%)를 16.2%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유의미하게 앞섰다.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(1.9%), 정의당 심상정 후보(1.5%),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(0.1%), 기타 다른 후보(0.6%), 지지 후보 없음(2.8%), 잘 모르겠다(1.9%) 순이었다.
권역별로 이재명 후보는 광주·전남·전북(77.1%), 인천·경기(57.6%), 서울(54.3%), 대전·충청·세종(50.9%), 부산·울산·경남(46.4%)에서 높았으며, 윤석열 후보는 대구·경북(56.5%), 강원·제주(48.3%)에서 높았다.
성별로는 남성이 이재명 후보 57.5%·윤석열 후보 36.1%였으며, 여성은 이재명 후보 49.8%·윤석열 후보 38.8%였다.
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40대(67.4%), 20대(61.3%), 30대(58.1%), 50대(54.1%) 등에서 앞

광주·전남, 이재명 66.6%·윤석열 18.4% 기록
문 대통령 국정평가, 긍정 47.3%·부정 50.1%

섰으며,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(54.7%)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.
◇정당 지지도
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.3%, 국민의힘 38.7%로 2.6%포인트 차이를 보였다. 이어 정의당 4.5%, 국민의당 3.2%, 열린민주당 1.3%, 기타 정당 0.7%, 지지 정당 없음 9.9%, 잘 모름 0.4%였다. 권역별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·전남·전북(62.7%), 인천·경기(47.5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 국민의힘은 강원·제주(52.0%), 대구·경북(51.1%), 부산·울산·경남(49.0%), 서울(44.6%)에서 지지도가 높았다.
대전·충청·세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.6%, 국민의힘 36.2%로 접전이었다.
성별로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41.5%·국민의힘 39.9%였으며,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41.1%·국민의힘 37.5%였다.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(58.2%), 50대(45.0%), 20대(37.5%)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며, 국민의힘은 60대 이상(50.8%)에서 앞섰다.

◇정치 이념 성향
정치 이념 성향은 중도가 37.5%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보수(27.9%), 진보(27.1%)로 엇비슷했다.
권역별로 진보는 광주·전남·전북(42.9%), 인천·경기(30.1%)에서 높았으며, 보수는 강원·제주(37.4%), 대구·경북(36.8%), 부산·울산·경남(32.5%)에서 우위를 보였다. 서울(진보 26.1%·보수 28.9%), 대전·충청·세종(진보 23.4%·보수 21.5%)은 비슷했다.
성별로는 남성이 진보 24.8%·보수 30.2%였으며, 여성은 진보 29.3%·보수 25.7%로 반대 양상을 보였다.
연령별로는 진보가 40대(35.7%), 50대(31.7%), 30대(29.4%)에서 앞섰으며, 보수는 60대 이상(37.4%)서 지지율이 높았다.

◇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
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잘함 47.3%, 잘 못함 50.1%를 기록했다.
세부적으로 매우 잘함 26.3%, 잘하는 편 21.0%, 잘못하는 편 13.8%, 매우 못함 36.3%, 잘 모름 2.6% 순이었다.
권역별로는 긍정 평가가 광주·전남·전북(70.4%), 대전·충청·세종(51.0%), 인천·경기(50.3%)에서 높았으며, 부정 평가는 부산·울산·경남(61.0%), 대구·경북(60.6%), 강원·제주(56.0%), 서울(52.8%)에서 높았다.
성별로는 남성이 긍정 43.4%·부정 54.2%였으며, 여성은 긍정 51.1%·부정 46.2%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.
연령별로는 40대(61.7%), 50대(50.4%)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으며, 60대 이상(58.9%), 30대(52.0%), 20대(50.9%)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았다.
이 밖에 투표 의향에서는 90.6%가 ‘반드시 투표할 것’이라고 응답했다. ‘가급적 투표할 것’은 4.9%, ‘그때 봐야 알 것’은 3.7%, ‘투표하지 않을 것’ 0.5%, ‘잘 모름’ 0.3%였다.
김욱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“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이번 대선은 인물 구도로 펼쳐지고 있으며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90.6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”면서 “다만, 이는 ARS 조사 특성상 선거 관심도가 높은 이들이 많은 결과이며, 실제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. 이전 19대 대선 투표율(77.2%)를 고려하면 70% 후반대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”고 말했다.
한편, 이번 여론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가인 에이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1일~2022년 1월 1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8%포인트다.



응답률은 6.9%다.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, 연령대별, 지역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 후 무선 100%로 임의전화걸기(RDD) 방식을 이용해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.
통계보정은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 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.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. /오선우 기자

조사 어떻게 했나

이번 여론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가인 에이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1~2022년 1월 1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8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6.9%다.
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, 연령대별, 지역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 후 무선 100%로 임의전화걸기(RDD) 방식을 이용해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.
통계보정은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 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.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.

